



영월 청령포와 장릉, 비운의 단종을 마주하다

강원도 첩첩산중 영월 땅에는 단종의 애절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영월의 명승은 거의 다 단종과 연관돼 있다. 청령포(淸泠浦, 명승 제 50호)는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었던 곳이며, 관풍헌은 단종이 17세의 나이로 사사된 관아 건물이다.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은 비운의 삶을 살았던 단종의 능이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청령포, ‘육지 속 섬’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궐에서 나오니/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짝 잃고 푸른 산을 헤매누나/ 밤은 오는데 잠들 수가 없고/ 해가 바뀌어도 한은 끝없어라/ 새벽 산에 울음소리 끊어지고 달이 흰 빛을 잃어 가면/ 피 흐르는 봄 골짜기에 떨어진 꽃만 붉겠구나/ 하늘은 귀먹어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데/ 서러운 이 몸의 귀만 어찌 이리 밝아지는가”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어 지내던 중 홍수로 인해 청령포에서 관풍현으로 옮겨 지내던 단종(端宗, 1441~1457)이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 지은 ‘자규시’(子規詩)다. 약관도 안 된 단종이 숙부에게 쫓겨나 유배 온 땅에서 이토록 절절하게 심정을 읊었다.

비운의 삶을 살았던 단종은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이다.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갑자기 죽으면서 단종은 1452년 겨우 열두 살 때 왕위에 오른다. 열네 살에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1457년엔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 학사 등이 상왕 복위 사건을 일으켜 사형 당하는 비운을 겪는다. 이로 인해 단종은 상왕 신분에서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 첩첩산중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다.

어린 단종은 관리 3명과 군졸 50여 명의 삼엄한 호송을 받으며 광나루를 건너 여주-원주 부론-귀래-신림 싸리재-주천을 거쳐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다. 청령포는 물살이 빠른 서강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고 한쪽 면은 험준한 육육봉으로 막혀 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밖으로 출입할 수 없는 절해고도(絶海孤島)와도 같았다.

배를 타고 청령포를 휘감아 도는 서강을 2~3분 만에 건너가면 단종이 첫발을 내디뎠던 자갈 섞인 모래사장이다. 자갈밭을 지나 흙길을 따라 올라가면 소나무로 둘러싸인 단종어소(御所)에 닿는다.



2



3

2000년에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라 그 당시의 모습을 기와집으로 재현해 놓았다. 어소 옆에는 공녀와 관노들이 생활하던 초가도 함께 들어서 있다. 어소 담장 안에는 영조 39년(1763년)에 ‘단종이 여기에 살던 때 집이 있었던 곳’이라는 뜻의 ‘단묘재본부시유지비’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담장 밖에서 어소를 향해 앞드리다시피 길게 뻗은 소나무는 마치 유배된 단종을 향해 90도 가까이 고개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엄흥도 소나무’라고 불린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이다.

단종어소를 둘러보고 소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천연기념물 제349호인 관음송(높이 30m, 둘레 5m)과 마주친다. 단종은 높이 1.2m쯤에서 갈라진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고 전한다. 단종의 슬픔을 바로 옆에서 보고(觀),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肅)는 뜻으로 관음송(觀音松)이라 불린다.

관음송을 지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노산대(魯山臺)에 닿는다. 노산대는 ‘궁궐 속 섬’에서 나와 ‘육지 속 섬’에 갇혔던 단종이 해 질 무렵이면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육육봉과 노산대 사이 층암절벽 위에는 단종이 한양에 두고 온 왕비를 그리워하며 돌을 쌓았다는 망향탑도 있다. 단종이 남긴 유일한 유적이다. 노산대와 망향탑에서 바라보는 서강과 넓은 백사장은 풍광이 아름답지만



5



6

1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는 울창한 숲밭이다. 2 단종어소와 엄흥도 소나무. 3 영조 2년에 세운 금표비. 4 층암절벽 위에 있는 망향탑. 5 단종어소에 마련된 밀랍인형. 6 밀동에서부터 두 갈래로 뿜은 관음송.



장릉, 세계유산 조선왕릉

역설적이게도 어린 단종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처럼 고립무원을 절감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청령포 한편에는 임금의 머무던 곳이니 일반 백성의 출입을 금한다는 금표비(禁標碑)가 세워져 있다. 영월부사 윤양래가 영조의 윤허를 받아 세운 이 비석의 앞면에는 '청령포 금표'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동서로 300척 남북으로 490척과 이후에 진흙이 쌓여 생기는 곳도 금지하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이 청령포에 머문 기간은 길지 않았다. 유배 온 지 두 달 지났을 때 청령포가 범람하여 물에 잠기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觀風軒)으로 거소를 옮겼다. 그 해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을 중심으로 한 복위 음모가 발각되자, 세조는 금성대군을 처형하면서 단종도 노산군에서 다시 서인(庶人)으로 강등한다. 한 달 뒤인 10월 24일에 금부도사 왕방언이 관풍헌으로 갖고 온 사약을 받고 단종은 생을 마감한다.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단종이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영월부 관아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4호로 지정했다. 현재 영월부 관아에는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된 객사와 자규루가 남아 있다

단종의 눈물, 권력을 둘러싼 비정을 목격

영월의 호장(戶長) 엄흥도는 삼죽이 멸하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도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영월 엄씨의 선산에 암장했다. 본래 왕릉은 도성에서 100리(약 40km) 안에 모시는 것이 관례였지만, 장릉(莊陵)은 단종이 죽은 지 240년이 훌쩍 넘는 1698년(숙종 24년) 추존하며 세운 것이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비운의 왕 단종이 묻힌 장릉의 봉분은 다른

1 장릉은 참도가 '구' 자로 꺾여 있어 독특하다. 2 장릉의 능침. 3 능묘 뒤로는 곡장을 두르고 앞에는 장명등을 세웠다. 4, 5, 6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을 배향하기 위한 배식단사와 위패를 모신 장판옥.

왕릉과는 달리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능묘에 난간석과 병풍석을 두르지 않았다. 묘역도 좁고, 무인석도 없다.

청령포에서 2.5km 떨어진 장릉으로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대부분 그냥 관심 없이 지나치는 배견암(拜鵞岩)과 배견정(拜鵞亭)이 있다. 김원식 문화관광해설사는 "정조 때 사육신 박팽년의 혈손인 박기정이 영월부사로 내려와 이 바윗돌에 두견새가 앉아 왕릉을 향해 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좀 더 편하게 왕을 배알하라는 뜻에서 정자를 지었다"면서 "새에게 지어준 세계에서 유일한





1 단중제를 올리는 한식 때 제정(祭井)으로 사용했던 우물인 영천(靈泉). 2 김원식 문화관광해설사가 배견암과 배견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왕릉은 죽은 자가 머무는 성(聖)의 공간과 산 자가 있는 속(俗)의 공간이 만나는 곳으로 그 공간적 특성에 따라 능침 공간, 제향 공간, 진입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2

정자"라고 설명한다. 배견정 옆의 '박충원 낙촌비각'은 영월부사이던 낙천 박충원이 꿈속에서 단종의 무덤을 찾은 일에 대한 사연을 기록한 기적비각이다.

박충원 낙촌비각 옆으로 난 계단을 따라 오르면 왕릉으로 향하는 길이 이어진다. 하지만 능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계단 길 입구 왼쪽의 단종역사관을 가면 단종의 탄생부터 유배, 죽음과 복권에 이르기까지 단종과 관련된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1층에서 휴게실을 가운데 두고 어린 세자 왕이 되다, 슬픈 역사의 시작, 노산군 길을 떠나다, 대왕의 부활, 영월과 단종사 등 5개 부분으로 구분된 전시물을 따라가다 보면 열일곱 소년 단종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단종역사관을 빠져나오면 단종제향을 지낼 때 제물을 준비하는 재실과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던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영조의 명으로 세운 '엄흥도 정려각',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위(忠臣位) 32인, 조사위(朝士位) 186인, 환자군노(宦者軍奴) 44인, 여인위(女人位) 6인 등 총 268명의 위패를 모신 장판옥(藏版屋)과 매년 제를 올리는 배식단사 등 다른 왕릉에서 볼 수 없는 건물과 시설을 만난다. 장판옥 옆으로 능지기가 가까워던 수복실과 단종의 능임을 알 수 있는 '조선국 단종대왕 장릉'(朝鮮國端宗大王 莊陵)이라고 새긴 비석을 모신 비각이 정비돼 있다.



3



4



5



6



7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홍살문으로 들어서면 신도와 어도가 나란히 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丁字閣)으로 이어지는 참도는 일반적으로 일자형으로 조성되는데 반해 장릉은 'ㄱ' 자형으로 꺾여 있다. 제를 모시는 정자각이 북쪽, 즉 능의 옆을 바라보고 있어서 단종의 옆구리를 향해 절을 올리는 모양새다.

장판옥과 엄흥도 정려각 사이의 데크를 따라 비탈길을 오르면 경기도 남양주 정순왕후의 사릉에서 옮겨 심은 소나무가 서 있다.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는 죽어서도 단종 곁에 묻히지 못하고 있다.

능은 서울 쪽, 곧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능 주위를 둘러싼 울창한 소나무들이 마치 단종에게 절을 하듯 틀어진 것이 많아 애뜻함을 자아낸다. 봉분 주위에 석호(石虎)와 석양(石羊)이 1쌍씩 세워져 있고, 능 양쪽에는 망주석과 문인석, 석마(石馬)가 서 있다. 이곳의 망주석엔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호랑이 문양인 세호(細虎)가 없다. 망주석에 조각하는 세호는 처음엔 별다른 형태를 갖지 못하다가 점차 동물의 형상을 갖추게 됐다.

지난 1967년에 단종과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단종 문화제'는 매년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영월군은 장례인 단종 국장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단종국장 재현 의식은 2007년 영월군에 의해 처음 치러졌다. ▼

3 능침으로 가는 길. 4 단종 묘를 찾아낸 낙천 박충원의 행적을 새긴 낙촌비각. 5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정려각. 6 임금의 혼과 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한자리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경액지(景液池). 7 장릉의 참도(參道). 왼쪽은 신의 길인 신도이고, 오른쪽 낮은 길은 임금이 다니는 어도다. 8 단종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관풍헌.



8